

주일 3부 예배(청년부 예배) 12시 30분 | 중고등부

목 상 기 도	다 같 이
신 앙 고 백	다 같 이
찬 양	청년부 찬양팀
기 도	김민주 청년
성 경 봉 독	말라기 3장 7-12절 사회자
교 회 소 식	사 회 자
설 교	“십일조에 담긴 속 뜻” 심광보 목사
기 도	심광보 목사
축 도	심광보 목사

오후 예배는 쉽니다!

사회 : 심광보 목사 찬송 : 445 장 기도 : 최용선 권사
성경 : 출애굽기 26장 1-14절
설교 : "성막:하나님의 깊음이 있는 곳"(심광보 목사) 찬송 : 455 장

기도 | 29일 1부 김재목 2부 김찬기 3부 오후 수요 한영희
6/5일 1부 유현상 2부 임춘선 3부 오후 수요 곽홍자
헌금 | 29일 1부 이은문 김 은 2부 나인우 김경화
6/5일 1부 문성민 최정화 2부 이상남 김경미
특송 | 일 오후 수요
일 오후 수요
안내 | 예배 1부 최정지 2부 김혜영, 김혜정
차량 송희준, 김재목, 최재현, 문성민

제 52권 21호

하의용 심광보
이소현 권은혜 이현경

김근호 나윤섭 김찬기 임춘선 송태원 김두환
한창규 김명남 한성웅

이소현 이하은 하은정

5월 22일
예배전찬양 임마누엘 찬양팀
목 상 기 도 다 같 이
신 앙 고 백 다 같 이
찬 양 임마누엘 찬양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되어도
(545장)
우물가의 여인처럼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기 도 양동춘 집사
성 경 봉 독 로마서 5장 2-11절 사 회 자
교 회 소 식 사 회 자
설 교 “즐거워하느니라” 하의용 목사
※ 찬송(헌금) 434 장 문영화, 최지숙
※ 헌 금 기 도 사 회 자
※ 축 도 하의용 목사

※표시는 헌신의 뜻으로 일어서서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롬 5:2)

목 상 기 도 마음준비 다 같 이
성 시 시 편 67 편 사 회 자
※ 찬 송 35 장 다 같 이
※ 교 독 문 55 번(시편 127 편) 다 같 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다같이)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445 장 다 같 이
기 도 김두환 장로 다 같 이
성 경 봉 독 로마서 5장 2-11절 사 회 자
찬 양 감사의 노래 시온찬양대
교 회 소 식 사 회 자
설 교 “즐거워하느니라” 하의용 목사
※ 찬 송 434 장 다 같 이
※ 헌 금 한승상, 임정례 다 같 이
※ 봉 헌 기 도 다 같 이
※ 축 도 하의용 목사

※표시는 헌신의 뜻으로 일어서서 드립니다.

<옆에 앉으신 분과 인사합시다>

예배위원은 예배시간 20분전까지 미리 오셔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소식

- 예배 주일 1, 2, 3부 현장예배와 교육부서 현장예배가 모두 정상화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 **현장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자리는 반드시 지정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시 회중석에서 절대로 마스크를 벗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약수는 삼가 주시고 반가운 마음은 가벼운 목례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요일야기도회 금요일야기도회가 밤 9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 세빛도서관 서대문 도서관과 연합하여 독서 토론 모임인 당근독(당신 근처의 독서 동아리) 프로그램이 6월 8일부터 4주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문의: 심광보 목사 010-8488-2203)
- 성경통독 삼광의 모든 교우들은 성경통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기관 각 교육기관의 주일 예배는 영상으로 녹화되어 있습니다.
- 헌금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헌금을 아래의 계좌로 송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협 301-0170-4479-41 삼광교회**
보내시는 분 성함+헌금내역 (예)홍길동십일조, 홍길동감사 등
▶ **개인 헌금 내역이 궁금하신 분은 스마트 요람 하단부에 있는 "개인헌금" 아이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월 행사일정

1일 당회 어린이 주일	8일 아버지 주일
15일 교사주일	22일 성령 강림절

헌 금

5/14(토)~5/20(금)까지

십일조헌금 강유진 고혁중 김두환 김소리 김옥진 남기향 박은경 서성훈 서숙희 송태원 송희영 심광보 전봉선 조성은 주정이 최광식 최지숙 추홍식 하의용 한창규 허정애 **감사헌금** 고정자 구영숙 김경자 김양자 김은희 박은경 서숙춘 서태호 심광보 심옥순 안은희 양동춘 양우열 양은서 양은애 이병길 이소현 이연숙 전형진 조성은 조숙자 채선하 최용성 최정숙 하은정 하의용 홍경애 황인철 무 명 **생일감사헌금** 전봉선 **선교헌금** 김동화 김영자 서성훈 서숙희 심광보 이연숙 주정이 한은희 허정애 1남전도회 1여전도회 **구제헌금** 김광인 김동화 김명남 김영자 변정섭 서숙희 심광보 이영숙 진옥경 1남전도회 1여전도회 **장학헌금** 문영화 변정섭 서숙희 이영숙 주정이 **건축및보수헌금** 문영화 변정섭 서성훈 서숙희 송희준 심광보 이이순 주정이 허정애 **나눔과 섬김 기부금** 서숙희 송희준 심광보 주정이 한은희

세빛 도서관

- 대출 도서를 아직 반납하지 않으신 분들은 도서관으로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실(유학생)

나눔과 섬김

- 매월 2회 음식섬김 교회 밖 어르신 5명
- 서대문 저소득층 섬김 매월 10만원

선 교 지

하口人 선교사님 기도편지

안녕하십니까? 저희 사역과 늘 함께 해주시는 동역자님 또한 함께 걸어가 주시는 동행자님 저는 저희 사역의 큰 변화가 있을 일을 위해 한 달 일정으로 요르단에 갑니다.
약 1년전에 저희는 요르단에 구호단체NGO (LCI 국제사랑의 봉사단) 설립을 신청했는데 얼마전에 허가가 났습니다. 사실 허가가 엄청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약한 믿음을 꾸지기라도 하듯이 주님은 단체 설립 허가를 받게 하심으로 저희에게 요르단에서 주님의 일을 맡기시려 한다는 강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LCI(Loving Concern International)요르단지부에서 일할 수 있는 '직원 비자' 신청을 위해 요르단에 5월 19일에 출국합니다.

그래서 동역자, 동행자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LCI를 통해 복음이 시리아 난민과 요르단과 열방에 전해지도록
- LCI 요르단지부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 주님의 제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 LCI에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안전, 사람, 동역자, 재정후원이 주께서 채워주시도록
- 하口人의 '직원 비자'가 빨리 나오도록
- 제가 한국에 없는 동안 제 가족의 강건함을 지켜 주시도록

채플실로 올라오는 저를 동료 전도사님들이 불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제, 수요일에 송아무개 목사님께서 오셨는데, 설교 끝에 본 교회 고등부 사역자가 갑작스런 사임을 하기 되어 파트사역자를 구하는데, 30대 초반에, 결혼을 하고, 교육학을 전공한 분이면 좋겠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저라고 생각이 되어서 한번 지원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별 관심이 없었는데 수업 후 도서관에 앉아 있는데 자꾸만 '신기하게도 조건은 딱 난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참 고민을 하다가, 신대원 사목을 찾아갔습니다. 송 목사님께서 지원할 사람이 있으면 신대원 사목을 통해 연락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늦은 저녁 9시가 넘어서 사목실 문을 두드렸더니, 사목은 이미 주무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늦은 시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저에 대한 소개와 송 목사님께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사목께서는 몇마디 더 물으시더니, 송 목사님 댁에 전화를 걸어주셨습니다. 전화벨이 울리고 수화기에 여자 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송 목사님께서는 이미 주무셔서, 사모님께서 대신 전화를 받으신 것입니다. 사모님께 제 소개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제 연락처와 이름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금요일, 한 주간 마지막 수업을 마쳤는데, 키가 큰 전도사님 한 분이 강의실 앞으로 나가서 칠판에 제 이름을 크게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이 계시면 앞으로 나와 달라는 것입니다. 궁금한 마음으로 나가서, "전데요"라고 했더니, 자신은 송 목사님 밑에서 사역하는 전도사인데, 오늘 송 목사님께서 면접을 보고 싶다고 해서 오후 5시까지 강남교회 목양실로 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으로 서둘러 돌아와 양복을 차려입고, 시간에 맞춰 강남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당시 교회가 건축 중이라 옆에 작은 건물에 목양실이 있었고, 목양비서가 저를 맞아 목양실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송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성경통독

□5/23(월) 욥기 32-34장	□5/24(화) 욥기 35-37장	□5/25(수) 욥기 38-42장
□5/26(목) 시편 1-3편	□5/27(금) 시편 4-6편	□5/28(토) 시편 7-9편
□5/29(일) 시편 10-12편		

구역모임